

2013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

- 인문사회 계열 -

한국항공대학교

◆ 대 학 명 : 한국항공대학교

◆ 모집시기 : 수시1차

◆ 전형명칭 : 일반학생전형/고양시지역고교 출신자 전형

◆ 모집계열 : 인문계열

◆ 출제유형 : 일반논술형 중 자료제시 논술형, 작문형

◆ 개요

- 시험시간 : 120분

- 출제문항수 : 3문항

- 답안지 양식, 작성분량 : 유선 (600,800자 내외)

- 지정된 필기구 : 흑색필기구 (볼펜만 사용가능)

- 수험생 유의사항 :

1. 논술고사 전 별도 예비소집일은 없으며 수험생은 고사 시작 30분 전까지 본교의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일시에 논술고사 대기 장소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사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논술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 한다.
3. 논술고사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이 없는 수험생은 논술고사 응시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는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입시 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한다.
4.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5.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 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한다.
6. 고사장에 입실 후 책상에 부착된 표의 수험번호와 성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논술고사 답안은 흑색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수정도 같은 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답안을 수정할 경우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은 줄 위에 작성한다.
8.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답안지에 수험생이 누구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하면 그 답안지는 무효 처리됨.
9. 논술고사 답안지는 원칙적으로 교환하여 주지 않으며, 문제지와 답안지는 가지고 나갈 수 없다.

◆ 출제방향(취지) 및 교과서 관련여부 및 근거 :

[문제 1]

주변 환경, 자신의 정서적 상태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가지 관점을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을 사회문제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도덕> 인간과 자유>결정론과 자유 의지> 환경 결정론

<윤리와 사상> 삶과 실존, 생명과 책임>정서적 비합리적 요소 강조

<경제>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국민경제, 경제성장

[문제 2]

인간과 환경, 그리고 변화라는 틀 안에서 결정론, 행동주의, 창조, 자유, 창의성과 책임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평가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철학>> 인간의 정신과 자유 의지 > 자유의지와 결정론

<윤리와 사상> 삶과 실존, 생명과 책임> 생활철학

<도덕> 인간과 자유>결정론과 자유 의지> 환경 결정론

[문제 3]

학생들이 제시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종합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명확히 기술할 수 있는가하는 점을 시험하는 데 출제방향을 맞추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봉산탈춤」

◆ 평가기준 :

[문제 1]

- <도표 4> 및 제시문 가)와 나)의 분석 (10점) :

• <도표 4>를 종합적으로 분석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문단 참조
(구체적인 수치 인용도 중요함)

• 제시문 가)와 나) 분석: 예시 두 번째 문단 참조

(환경결정론, 정서의 중요성 관점을 설명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음. 관점만 이해하면 됨. 따라서, 환경결정론, 정서의 중요성을 제시문의 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관점의 현실 세계 적용 (20점) :

• 환경결정론 적용 : 예시, 세 번째 문단 참조

• 정서 관점 적용 : 예시, 네 번째 문단 참조

- 대안의 제시(10점) :

• 두 가지 이상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만점

• 경제적 여건 개선 및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분석 결과를 단순히 반복하면 점수를 주지 말 것

[문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비교(15점): 예시 답안의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참조
제시문 나)의 지문을 인간의 자유, 책임과 연관지어 논술(15점): 예시 답안의 세 번째 문단 참조
논리성, 창의력, 표현력을 15점 중 각각 5점씩 평가

[문제 3]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나는 웃음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가?(15점)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서 발생하는 웃음에 대해서 논술하였는가?(10점)
문장과 단락, 글의 완성도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5점)

◆ 출제문제: 인문사회계열

【문제 1】 (4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환경은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실재이다. 즉, 환경은 우리 정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세계를 의미한다. 이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의식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물질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사회의 물질적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물질적 상황이 개인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우리 인간은 물질적 질서의 법칙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나) 감성의 힘을 무시하는 견해는 안타까울 정도로 근시안적이다. 새로운 과학적 인식과 시각에서 볼 때,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바로 그 이름으로 인해 현재 삶에서 차지하는 감성의 위치를 오해하고 있다. 다들 경험으로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경우, 감성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IQ로 측정되는 합리적인 것의 가치와 의미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왔다. 좋은 삶든, 감성이 지배할 때 이성온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다.

<도표 1> 대한민국 1인당국민총소득 및 경제성장률(각 연도별)

| 항목\연도 | 2001 | 2003 | 2005 | 2007 | 2009 | 2010 | 2011 |
|---------------------|--------|--------|--------|--------|--------|--------|--------|
| 1인당국민총소득 (달러) | 10,631 | 13,460 | 17,531 | 21,632 | 17,041 | 20,562 | 22,489 |
| 국내총생산 (실질성장률: %) | 4.0 | 2.8 | 4.0 | 5.1 | 0.3 | 6.3 | 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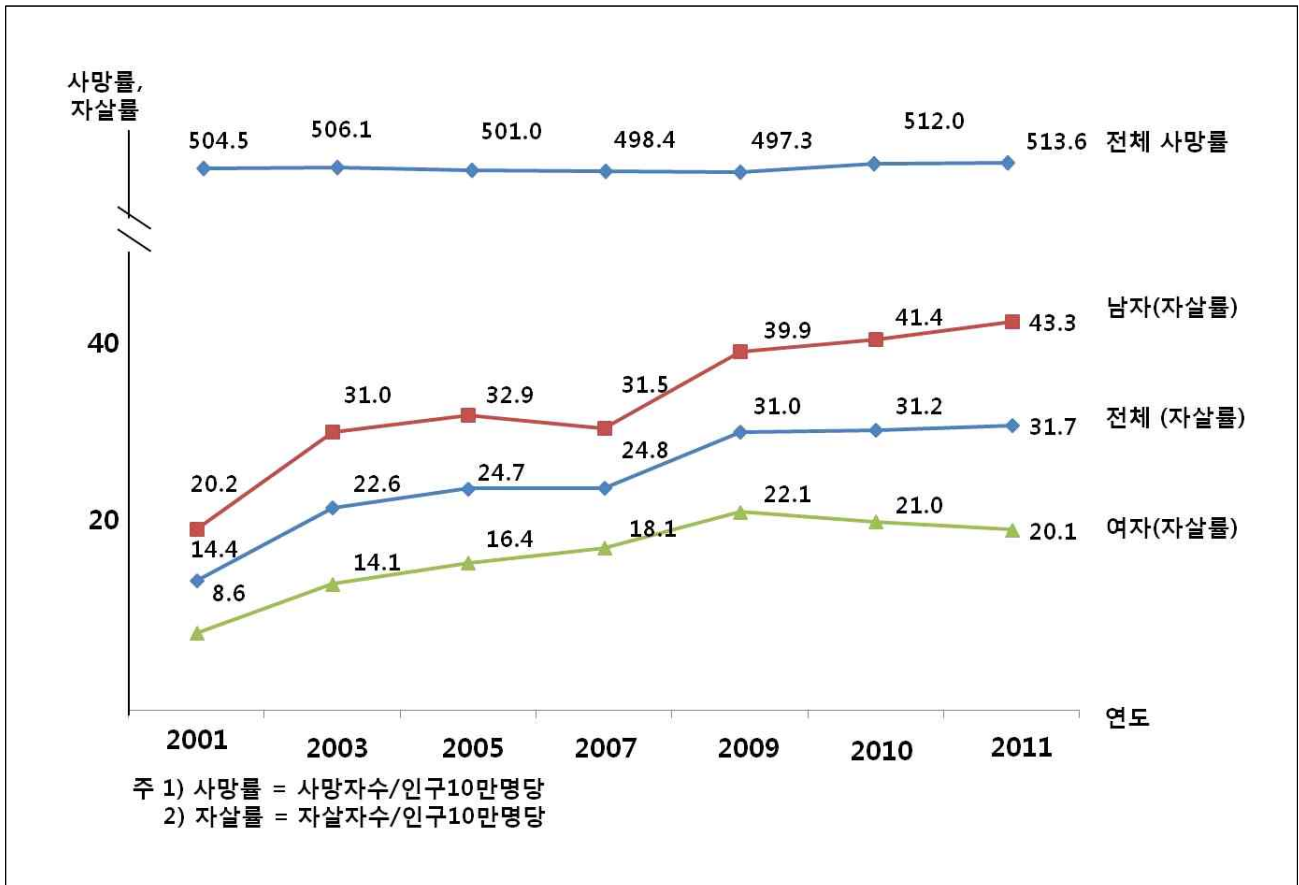
<도표 2> 대한민국 남녀별, 소득별 생활만족도(2011년 기준) 단위: %

| 구 분 | | 만족 | 보통 | 불만 |
|-------|--------------|------|------|------|
| 성별 | 남 | 17.9 | 47.9 | 34.2 |
| | 여 | 24.6 | 49.4 | 26.0 |
| 월평균소득 | 100만원 미만 | 10.8 | 47.5 | 41.7 |
| | 100-200만원 미만 | 13.3 | 49.4 | 37.3 |
| | 200-300만원 미만 | 17.8 | 49.8 | 32.4 |
| | 300-400만원 미만 | 22.2 | 49.9 | 27.9 |
| | 400-500만원 미만 | 26.1 | 48.5 | 25.4 |
| | 500-600만원 미만 | 28.6 | 46.8 | 24.6 |
| | 600만원 이상 | 36.9 | 43.6 | 19.5 |

<도표 3> 자살률, 1인당국민총소득, 생활만족도의 국가간 비교(2010년 기준)

| 국가별 |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 | 1인당국민총소득 (달러) | 생활만족도 (10점 만점) |
|-------|---------------------------|------------------|-------------------|
| 대한민국 | 31.2 | 20,759 | 6.9 |
| 일본 | 19.7 | 44,272 | 5.6 |
| 에스토니아 | 14.7 | 13,562 | 5.5 |
| 체코 | 12.6 | 17,100 | 6.3 |
| 칠레 | 12.4 | 10,987 | 6.6 |
| 뉴질랜드 | 11.5 | 31,639 | 7.1 |
| 미국 | 11.2 | 47,330 | 7.2 |
| 스웨덴 | 10.9 | 49,723 | 7.3 |
| 이스라엘 | 5.8 | 28,389 | 7.4 |

<도표 4> 대한민국 사망률, 자살률(각 연도별)



[문제 3] 제시문 (가)와 (나)는 인간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도표 1>, <도표 2>, <도표 3>을 이용하여 <도표 4>의 각종 사망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문제 2】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정치학과 신학, 경제학에서 행동은 언제나 그 사람의 태도와 의도, 욕구를 추론할 재료로 여겨져 왔다.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간의 정신적 삶에 대해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을 정신의 부산물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 그 문제들은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기술만으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행동의 기술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능력을 부려왔다.

한 가지 어려움은 행동과학이라고 불리는 것 거의 모두가 행동을 마음의 상태와 감정, 성격적 특성, 인간의 본성 등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리학과 생물학도 한때는 그와 비슷한 관행을 따랐으며, 행동과학도 그 관행을 버릴 때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 행동의 형성과 보존에 대한 환경의 선택적 역할은 이제야 겨우 인식되어 연구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 이해되기 시작함에 따라, 한때 마음의 상태와 감정, 성격적 특성으로 둘러졌던 영향들이 접근 가능한 조건들로 둘러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행동의 기술이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의 기술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과학 이전의 관점을 완전히 대체하고 전통적 관점들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유와 존엄이 그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전통적 의미에서 자유와 존엄은 자율적인 인간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자유와 존엄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성취에 대해 칭찬을 듣는 관행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적 분석은 그 책임과 성취를 환경으로 돌린다.

또한 과학적 분석은 가치와 관련 있는 질문들을 제기한다. 행동의 기술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이 해결되기 전까지 행동의 과학은 계속 거부당할 것이다. 행동의 기술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 내 손이 공기 속에서 움직이는 대신에 섯가루 더미를 관통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어느 순간 내 손이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하면, 바로 이 순간 섯가루들은 일정한 형태로 조정될 것이다. 이 형태는 멈추어 버린 손과 팔의 일부 형태 자체일 것이다. 이제 손과 팔이 보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구경꾼들은 그것들의 배열의 근거를 섯가루들 자체에서 그리고 섯가루 더미 안에 있는 힘에서 찾으려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각 섯가루의 위치를 그 옆의 섯가루가 행사하는 작용과 연관시킬 것이다. 그들은 기계론자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전체의 계획이 섯가루 개개의 세부 작용까지 지배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들은 목적론자들이다. 그러나 진실은 단지 섯가루더미를 관통하는 손의 불가분적 행위만 있었다는 것이다. 섯가루들의 끝없는 세부적 움직임과 섯가루들이 최종적으로 배열된 질서는 이 불가분적 운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이것은 저항의 일원적인 형태이지 적극적인 개개의 작용들의 조합이 아니다. 그 때문에 섯가루들의 배열을 결과라고 부르고 손의 운동을 원인이라고 부른다면, 결과의 전체가 원인의 전체에 의해 설명되는 것이지 결과의 부분들이 원인의 부분들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계론이나 목적론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해명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섯가루 더미는 손의 운동을 그려내고 터널을 만들고 한정하는 것이다. 손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손은 섯가루 더미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하지만 손이 멈추

는 곳이 어디든 간에 순간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쇳가루들은 평형을 이루고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룰 것이다. 그 질서는 완전무결하다. 그것은 부분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낳은 실재적 과정에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을 기계론도 목적론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것만을 파악하고 외부로부터 바라보는 지성만의 눈이 아니라 정신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해 보자. 행동에 내재하는 직관의 힘으로 바라보도록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고 모든 것이 운동으로 융해될 것이다. 지성이 전진하는 행동의 고정된 이미지에 작용하면서 우리에게 무한히 다양한 부분들과 무한히 정교한 질서를 보여주는 곳에서 우리는 단순한 과정을 발견한다. 이 단순한 과정은 같은 종류의 작용을 해체함으로써 생성되는 작용이며, 마지막 불꽃이 사그라지는 불꽃들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파편들 사이에서 만들어 내는 길과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명 진화에 관해 제시했던 일반적인 고찰들이 분명해지고 완벽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약동은 창조의 요구에 따라 생겨난다.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전의 관행을 비판하며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고, 제시문 (나)와 연관지어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내가 알기로, 웃음은 사악한 인간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책은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술로 목젓을 가르랑거리듯이 웃으면서, 사악한 인간은 제가 주인이라도 된 듯이 뽐내는 법이요. 왜? 취하면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김으로써 그 주종 관계를 역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까. 헌데 이 책은 바로 그 순간부터, 머리 좋은 식자들에게 이 역전을 합리화할 책략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행히도 무식한 대중은 그러한 역전을 몸으로는 믿어도 머리로는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범용한 인간에게 적당한 웃음은, 죄인인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한다는 뜻에서 반드시 타기해야 할 것은 아닐 테지요. 그런데 이 책은 그 대같이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웃음을 인간의 목적인 양 오인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프로메테우스도 알지 못하던 이 웃음을,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데 대단히 요긴한 예술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책은 풍자극이나 광대극과 싸잡아서 희극을 평가하되, 그것이 불완전하고 허약한

인간의 연기를 통하여 감정을 씻어 내는 무슨 대단한 영약인 양 평가하고, 오히려 천박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악한 식자로 하여금 악마적으로 뒤틀린 거만한 자들을 구하려 하고 있어요.”

나) 나는 부처를 빙그레 웃는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동양의 전통을 좋아한다. 서양의 일신교들에서는 신격을 가진 존재들이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머를 무척 좋아했던 분이다. 그런 분을 설교자와 심판자로만 간주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서양의 일신교들에서는 미소 짓는 예언자, 유머를 좋아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나는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끄는 종교를 좋아한다. 나는 동양의 종교와 철학에서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들을 발견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아주 좋아한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예수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말하는 예수, 심판하지 않는 예수, 참된 인간의 면모를 지닌 예수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형상을 볼 때마다 조금 불편한 기분을 느낀다. 예수가 재림해서 그 십자가상들을 본다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예수는 자기 생애의 가장 고통스런 순간을 상기시키는 상징물 보다는 브라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수상처럼 두 팔을 벌리고 사람들을 맞아주는 모습이라든가 친구들과 더불어 웃고 있는 모습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다) 캐리커처나 패러디, 가장무도회의 변장 등은 보는 이에게 특별한 희극적 쾌락을 제공하면서 대상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그것은 권위 있고 존경 받는 ‘숭고한’ 대상의 체면이나 명예를 깎아내리고 격하시키는 절차이다. 숭고함이란 심리적 의미에서 ‘큼’이다. 나는 신체적으로 큰 것과 마찬가지로 숭고함 역시 과잉 에너지를 통해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싶다. 숭고한 것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목소리를 다르게 하고, 다른 표정을 지어 흉내 내며 나의 모든 몸짓을 그 품격에 일치시키려 한다. 왕이나 위대한 학자와 같은 고귀한 사람 앞에 나아갈 때와 별로 다르지 않게, 나는 내게 점잔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정술에 의해 신경을 다르게 자극할 때 정신 에너지는 더 많이 든다. 고상한 것을 깎아내리기 위해 앞에서 든 절차들 덕분에 숭고한 것을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주눅 들지 않고, 그것들이 관념적으로 현존하더라도 군대 용어로 ‘편히 쉬어’ 자세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점잔을 강요하는 데 드는 과잉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정신 에너지의 차이는 웃음으로 방출된다.

라) 말뚝이: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짬파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옥모각지 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烏銅壽福)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 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고 그리 하였소.

양반들: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문제 3]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나는 웃음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라)에서 구현되는 웃음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 출제문제 해설: 인문사회계열

[문제 1]

- 출제의도

학생들의 제시문의 기본 관점 이해력, 기본 관점을 도표(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응용력, 객관적 자료(숫자)를 통해 현실을 해석하는 분석력,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환경결정론에 대한 일반적 설명

제시문 나) 대니얼 골먼 <감성 지능>

<도표 1> ~ <도표 3> 각종 통계를 표 혹은 그림으로 표현

- 논제분석(해설)

요구사항(requirement)

| What | How |
|--|--------|
| ① 인간 행동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 설명하시오. |
| ② 각각의 관점에서 <도표 1>, <도표 2>, <도표 3>을 이용하여 <도표 4>의 각종 사망률 원인을 | 분석하시오. |
| ③ 향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 논술하시오. |

- <도표 4>에 대하여 <도표 1>, <도표 2>, <도표 3>이 각각 두 관점 중 어떤 것을 반영하는지를 선택하여 설명, 분석, 논술할 것

[문제 2]

- 출제의도

학생들이 대조/유추하는 능력, 창의력, 표현력, 논리성, 비판력,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본 문제 출제의 의도이다.

-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스키너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자유와 존엄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인간 행동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함을 강조하는 환경결정론적인 스키너의 견해를 대변해 주는 글이다.

제시문 나] 앙리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창조적 진화>: 극단적인 목적론이나 극단적인 기계론을 거부하면서 원초적인 삶의 역동을 강조하는 베르그송의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다.

- 논제분석(해설)

요구사항(requirement)

“인간과 환경사이의 관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비교할 것.
제시문 [나]를 자유와 책임과 연관지어 의미를 부여할 것.

| What | How |
|---------------------------|-------|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 비교하시오 |
| 제시문 [나]를 인간의 자유와 책임과 연관지어 | 논술하시오 |

[문제 3]

- 출제의도

학생들이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비교, 대조하는 능력과 자신의 논리를 이끌어 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본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마지막 대목이다. 호르헤 신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부 「희곡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부분이다. 그는, 이 책이 “인간의 연기를 통하여 감정을 씻어 내는 무슨 대단한 영약인 양 평가하고, 오히려 천박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악한 식자로 하여금 악마적으로 뒤틀린 거만한 자들을 구하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감정을 씻어내는 영약이란 카타르시스 이론을 의미한다. 희극의 관객이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내면적 해방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해방감은 종교적 숭고함이나 근엄성 혹은 신에 대한 두려움 등에 대한 해방을 의미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스스로를 주인으로 여김으로써 주종 관계를

역전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책은 중세 기독교의 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책’이다. 그리하여 호르헤 신부는 성당에 불을 질러 책과 더불어 재가 된다.

제시문 나]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최근 『웃음』이라는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이 제시문은 번역가 이세욱이 베르베르와 프랑스 그의 저작에서 한 대담 「인간의 발명품 ‘고독과 고뇌, 그 해독제는 웃음-대담」의 일부이다. 여기서 베르베르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말하는 예수, 심판하지 않는 예수, 참된 인간의 면모를 지닌 예수”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고뇌의 예수나 심판의 예수, 희생의 예수 보다는 너그럽고 여유 있으며 친근한 예수를 더 좋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빙그레 웃는 부처로 대표되는 동양의 현자의 모습과 흡사하다. 웃음의 가장 심오한 의미를 그러한 모습에서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시문 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정식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는 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토대로 농담, 캐리커처, 희극 등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밝힌 책이다. 이 제시문은 길이는 짧지만 웃음의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제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송고함이나 진지함 등의 행동을 할 때, 인간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는 긴장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하다. 그러한 긴장이 해소되어 ‘편히 쉬어’ 자세가 된다면 필요한 에너지는 줄게 되는데, 이때 차이가 나는 에너지는 웃음으로 방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정신적 해방감을 느낀다. 이러한 에너지는 사회적 힘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제시문 가]와 연결 지어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제시문 라] 황해도 봉산에 전래되는 가면극 『봉산탈춤』의 제6과장 양반춤 과장의 일부이다. 조선 후기, 당시 계급의 해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반의 권위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사회적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봉산탈춤』과 같은 마당극에서는 양반들을 희화화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웃음의 도구로 삼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중들은 어느 정도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는 서양의 카니발 축제에서 귀족을 희화화했던 점과 유사하다. 이 지문은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다. 채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논제분석(해설)

- [가], [나], [다]를 분석하여 비교 대조할 것.
- 제시문 [라]의 웃음의 의미를 [가], [나], [다]와 연관지어 의미를 제시할 것.

| What | How |
|--------------------|----------------------------|
| 제시문 [가], [나], [다]를 | 분석하여 비교 대조하시오. |
| 제시문 [라]이웃음의 의미를 | [가], [나], [다]와 연관지어 논술하시오. |

◆ 예시답안 :

[문제 1]

<도표 4>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우리나라 전체의 사망률과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통해 전체 사망률은 최근 약간 높아지긴 하였으나, 인구 10만명당 500명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체 사망률의 한 원인인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연도별 추이를 볼 때, 남자의 경우 2007년 31.5로 낮아졌다가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은 2009년 최고점 22.1 이후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을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시문 가)는 인간행동의 결정 요소로 환경을, 나)는 인간의 정서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첫째, 환경결정론 관점에서 한 국가의 사망률 및 자살률은 1인당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2001년 10,631달러에서 2007년 21,632달러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17,041달러로 후퇴하였다. 또 경제 성장률도 0.3%로 낮아 졌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 기반인 경제적 여건이 매우 악화된 2009년에 2007년 주춤했던 자살률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서 관점에서 인간의 정서 상태가 사망률 및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표 2>에서와 같이 여자의 생활만족도가 남자보다 높다. 따라서 여자의 자살률은 남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향후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표 3>을 통해 외국의 경우, 생활만족도가 자살률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일가정 균형, 실패자에 대한 배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도표 2>에서와 같이 생활만족도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소득이 증가되면, 생활만족도도 함께 증가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또, 경제가 불황인 경우에는 취업 알선과 같은 실업자 지원 대책도 있어야 한다.

셋째, <도표 3>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경제적 여건, 즉 환경결정론 관점이 자살률을 설명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소득, 경제적 지위를 중시하는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 소득 증대나 경제적 지위 획득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즐기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문제 2]

제시문 [가]는 전통적인 자율적 인간관을 부정하면서 인간 행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동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받은 자질과 외부 환경이 조우한 결과이다. 따라서 환경의 자극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인간 행동이 인류 문화의 생존을 돕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시문 [가]의 주장은 제시문 [나]의 창조적 진화론과 대조된다.

환경이라는 외적 조건이 강조된 제시문 [가]와 달리 제시문 [나]에는 환경에 의한 결정론이나 목적론에 반대하는 열려있는 진화의 개념이 소개되고 있다. 진화는 생명력이 어떤 내적 요구에 따라 외적 조건들을 다시 생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진화란 영원히 창조적인 과정이요,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다. 인간은 외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력이라는 내적 욕구에 따라 외적 조건을 다시 만드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이것이 제시문 [나]가 펼치는 창조적 진화의 핵심 주장이다.

제시문 [나]에서 비판되는 결정론이나 목적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위협적으로 작용한다. 결정론적인 사고 체계 아래에서는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미 완성된 원인적 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 개개인의 자발적인 판단과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면 인간의 행동을 참, 거짓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인간의 행위가 결정론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다면,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진다. 이렇게 볼 때 결정론과 목적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창조적 진화를 개진한 제시문 [나]는 과학적 분석이라는 이름 아래 희석된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의미가 있다.

[문제 3]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웃음과 대비되는 개념과의 차이를 통해서 웃음의 의미를 드러낸다. 가]에서 웃음과 대비되는 개념은 종교적 근엄성이다. 나]에서 그것은 고뇌, 희생, 심판 등이다. 다] 그것은 숭고와 권위이다.

가]에서 웃음은 위험한 것이다. 여기서 웃음은 전복적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웃음은 종교적 위엄에 도전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파괴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에서 웃음은 너그러움이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다. 고뇌, 희생, 심판 등의 예수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웃음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반드시 종교적 의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 다]는 웃음 자체의 의미보다 웃음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숭고함이나 진지함 등의 행동을 할 때, 인간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정신 에너지를 집중한다. 그러한 긴장이 해소되면 필요한 에너지는 줄게 되는데, 이때 차이가 나는 에너지는 웃음으로 방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정신적 해방감을 느낀다.

라]에는 말뚝이와 양반 삼형제가 등장한다. 양반들은 하나같이 좀 모자란 사람들이고, 말뚝이는 이들을 희화화한다.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와 같은 언어유희나 담뱃대 재담 등에서 이러한 점은 잘 드러난다. 가)와 다)의 설명에서 보듯이, 권위 있는 것을 희화화함으로써 민중이라고 추측되는 관객으로 하여금 웃음의 발생을 유도하고 해방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가)에서 말하는 카타르시스 작용에 의해 가능하다. 굿거리장단이 맞춰 추는 춤을 통해서, 양반과 말뚝이와 관객은 하나가 된다. 이는 나)에서 강조하는 웃음의 인간적 성격을 보여준다. 인간은 이러한 화해의 마당에서 억압을 최소화하고 공존의 삶으로 나아간다.